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심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co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fny

Email : stfranciscok.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뜻쟁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이사 6,1-2ㄱ.3-8

[화답송] 시편 138(137), 1과2나.2ㄱㄷ과3.4-5.7=8(◎1ㄱ)

(후렴)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노래 부르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제 2 독서] 1 코린 5,1-11(또는 15,3-8.11)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복음환호송] 마태 4,19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5,1-11

[성가안내]

- 입당성가 [29] 주 예수 따르기로
- 봉헌성가 [513] 면병과 포도주
- 성체성가 [156] 한 말씀만 하소서
- 파견성가 [34]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김 춘은 요셉	김 린다
이 종환 토마스 아퀴나스	김 영빈 루치아
전 마지 마가렛	가족
이 영우, 이 태묘	이 상홍 스테파노
대니 네런 (Danny Nairn)	김 유진 가족
이 정진 안토니오	전례부
이 정진 안토니오	유 경자 데레사
김 금옥	정 리드비나
백미사	봉헌
김 경련 울리다, 강 호영 대건 안드레아	전 마지 마가렛 가족
이 영애 레지나 가족을 위하여	양 미숙 마리아
정 희정 세라피나 가정	정 희정 세라피나
박 연희 감사	박 순 로사
이 경희 미카엘라 (건강 회복을 위하여)	황 지윤 아네스, 이영주 비오
박 수정 크리스티나, 박 수진 줄리아(건강유해)	양 미숙 마리아
김 기례 레지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익명
박 순 로사	익명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2월6일	박기웅 사도요한	박기묵 알버트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안선정 마리안나	황예슬 엘리자베스	김하나 미리암
2월13일	이영노 율리안나	정은철 프란치스코	장혜윤 크리스티나	장혜윤 크리스티나	유정옥 유스티나	신혜정 소화데레사	김승현 마리아

●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2. 2 모든수도자 2. 3 블라시오 2. 5 아가타
2.10 스킴라스티카 2.14 치릴로 2.23 폴리카르포

● **2021년 한 해 동안 성경 통독하신 분들 축하합니다.**

유 정옥 유스티나, 강 혜숙 바울라, 이 경자 올리안나
조 남록 미카엘, 신 애송 헬렌, 김 효진 유리아나
유 희순 그레이스, 경 재순 가밀라

● **성경 통독하시는 동안 체험이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주시면 후보에 실겠습니다.**

● **울뜨레아 월례회 Zoom 으로 합니다.**

- 2월 12일 (토) 오전 10시
- Zoom 주소는 단독방에 올립니다.

● **풍물패 '신명' 연습 있습니다.**

- 2월 13일 오후 2시 ~ 4시

● **COVID - 19 '오미크론'의 확산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증상이 특징이라니 더욱 경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사 때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1월 10일부터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교리	주일 10:30am - 교육관 3 A

[단체모임 안내] : 개방일은 추후 공지합니다. 방배정 먼저 확인하세요.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06:00pm~07:3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프란치스 룸
'신명' 풍물패	둘째, 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하늘처럼 성가대	am~13:30pm	교육관 3B
청년 전례부	~	교육관 2E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25주년 기도문
(1997. 3. 2. ~ 2022. 3. 6.)

좋은신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하나 되도록 불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향해 걸어온
맨하탄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 한인 공동체가 설립
25주년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 주지 않으시면
그 지키는 이의 파수가 헛되리라.’ (시편 127)는 말씀처럼,
지금 저희 공동체가 현존하고 있음은
당신의 은총 덕분임을 고백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하오니, 공동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애써 온
모든 형제들, 자매들, 수도자들과 사제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어,
당신 나라 건설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당신 눈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소서.

또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마태 5,13-14) 계속하여
당신의 좋으심을 증거 할 한인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늘 “감사하는 마음”과 “나눔과 함께 하는 정신”으로
“당신 안에 하나 되게”하시며,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를 본받아,
가는 곳마다 당신 평화를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루시아) | 김옥지(아가다) |
| 이정주(소화데레사) | 김동희(헬레나) |
| 김용기(요셉) | 지군자(스테파니) |
| 정창동(폴리나) | 진정은(마리아) |
| 고종호(마태오) | 이진자(세실리아) |
| 홍봉운(바오로) | 이병국 (요한) |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 |

[2022년 2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여자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자들

여자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자들의 사명과 용기에 감사하며,
우리 시대의 도전들에 대한 새로운 응답들을 끊임없이
찾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오늘의 복음 묵상

(루카 5,1-11)

홍성남 신부의 특 쓰는 영성

'받는 것도 영성이다'

루카가 전해주는 오늘의 복음은 '고기잡이 기적-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 이야기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였으나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 많은 고기를 잡은 다음 베드로는 엎드려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죄인입니다." 이 말은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 사람이 느끼는 경외심을 표현합니다. 동시에 교만이 꺾이고 겸손하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733항은 베드로의 고백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느낄 때 겸손한 사람은 더 깊은 신뢰심을 갖게 되고, 더욱 끈기 있게 참아 견딘다." 베드로는 이 겸손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며 루카는 오늘 복음을 맺었습니다.

오늘의 제1독서 이사야서는 '이사야의 성소'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목격하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큰일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뵈다니!" '입술이 더럽다'는 말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엎드린 그도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경외심은 경신덕입니다. 숯불로 입술이 정화된 후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겸손하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는 하느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오늘 제2독서 코린토 1서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바오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특전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미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외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한 인물들은, 우리들과 달리, 하느님의 현존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고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특전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느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또한 은총입니다. 이 은총은 '오늘'을 위한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사람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하나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평생을 받고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양체 혹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살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늘 남에게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위 사람들로 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사는 사람이라고, 복음적 삶을 사는 사람, 성인 같은 사람이라고 칭송을 듣습니다. 물론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는 삶을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늘 다른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 사람이라고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심지어 자기학대를 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옛 성현들의 말씀처럼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만큼 받는 훈련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만 하는 분들은 받는 것을 아주 불편해 하십니다. 이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 콤플렉스입니다. 이런 콤플렉스가 심한 분들은 올 한 해 받는 연습을 하시면서 마음의 균형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탄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성탄절에 동네 아저씨 한 사람이 만취상태로 한밤중에 성당을 들어섰습니다. 난생처음 들어와 본 성당, 제대 쪽으로 가보니 아기 예수님 상이 놓여있고 그 앞에 헌금함이 보였습니다. '어? 이거 봐라 ~ 돈통이네?'

취객은 헌금함에서 돈을 꺼내어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기 예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취객은 사탕 한 알을 아기 예수 입에 물려주며 "어린놈이 벌써부터 돈에 눈독들이면 안 된다."고 타이르고 룰루랄라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뒷전에서 웬 여인의 고함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이놈자식 왜 우리 아기 돈을 가져가는 거야!" 취객이 돌아보니 성모님이 노기를 띤 눈으로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취객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본당 신부가 찾아 왔습니다. 취객은 너무 놀라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본당 신부가 무릎을 꿇더니 "형제님~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형제님 덕분에 성모님이 소리 치시고 아기 예수가 우는 기적이 일어 났습니다. 지금 성당에 신자들이 길게 줄 서 있는데, 한 번만 더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하고 하더라.